

남성패션의 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1890년대 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이 속 회

호남대학교 예체능대학 의상학과

A Study on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Men's fashion
—From 1890's to World War II—

Suk Hee Lee

Dept. of Apparel Desing, Honam University
(1994. 12. 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20th men's fashion.

The result of the Study as follows;

1. In the period 1890's—World War I there was a display of opulence and extravagance. Therefore men's fashion pursued with elegance and grace.

The rise of sports and an erosion of rules of Victorian society were evident influences before 1914. So men's silhouette resembled athletic appearance and less formality was shown in masculine attire.

2. During the period World War I—1920's the new equality of social relations between the sexes had an influence in fashion. Unisex look evolved so boyish shaped became the feminine ideal, men wanted to boyish fitted leaner stylings and natural shoulder suits.

In the twenties youth, who seemed to have a social dominance, asserted their own testes in fashion. New style of men's fashion such as oxford bags and Ivy League Look appeared.

After World War I "comfort" is the aim of fashion so casualness was reflected in fashion: vests often were discarded and man wore a soft, detachable collars.

3. In the thirties depression marked a shift in mood from gaiety and progressivism of the twenties to the conservative, even reactionary values. The role of men and women returned to more traditional attitudes, Every men's general appearance was bold and manly: his chest was broad and well-built, his shoulders square and muscular.

The effects of World War II were not on style but on textiles and clothing construction: lighter weight fabrics appeared and construction was simplified.

4. Men's dress changed only in detail and not in essence. But there was a continued increase in the variety of clothes and color in men's fashion.

5. The casual look, the prototype of informal, functional and nonspecialized attire, is a most important phenomenon of the 20th men's fashion, It is rooted in the general rise of sports, the revolt of youth and war.

I. 서 론

패션은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지적, 예술적 사건의 반영물이다¹⁾. 따라서 사회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은 패션 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패션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변화의 속성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형태 변화에 영향을 준다²⁾.

20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 대량생산 방식의 등장, 1, 2차 세계대전, 여성해방, 경제공황, 예술적 변혁 등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복식에 반영되었다. 특히 의복과 삶의 형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인한 여성 역할의 변화는 여성복 유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20세기 남성복의 유행에 있어서는 19세기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성립된 신사복의 단순미와 의상 각부분이 조화되면서 생성된 우아함이 지속되어 남성 의상미의 요체를 이룬다³⁾. 이는 19세기 이래 산업과 부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의 역할은 20세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으므로 활동하기 편리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적합한 실용적인 의복으로의 신사복 유행이 계속되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남성복은 여성복의 유행 만큼 변화가 크지 않지만 그시대를 반영하며, 여성복보다 그 속도가 느리지만 유행의 주기가 존재한다⁵⁾. 따라서 20세기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남자복식의 유행을 연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동향은 여성복에 치중하였고 남성복은 근대 신사복의 성립시기인 19세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으나 20세기 남성복 유행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⁶⁾.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시대적배경과 관련하여 20세기 남성복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할 계획이다.

연구범위는 서양 남성복식을 중심으로 현대 신사복(lounge suit, bussiness suit)이 널리 착용되고⁷⁾, 디자인과 착용방법이 오늘날의 신사복과 유사한 1890년

대 부터^{8,9)} 신사복의 다양한 스타일이 소개되기 전인 1945년 2차대전 직후까지를 다루려고 한다.

II. 20세기 남성패션의 시대적 변천과 특성

1. 19세기 말부터 제 1 차세계대전까지

1) 시대적 배경

19세기말에서 제 1차세계대전에 이르는 이기간은 제국주의의 확대로 인한 식민지 침략은 있었지만 19세기 근대 산업사회의 정착 이후 산업진보와 자본주의 발전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였다.

영국은 Victoria 여왕 이후 Edward VII세의 통치기간(1901~1910)에는 영국의 식민지는 전세계의 4분의 1에 이르렀다¹⁰⁾. 또한 Victoria 시대의 도덕과 높은 수준의 예를 중시하는 규범은 약화되었으나 결여되었던 사교생활과 패션은 강조되었다^{11,12)}. 이러한 풍요로움과 사치는 프랑스와 미국의 부유층에 퍼졌다. 이시기를 프랑스에서는 “la belle epoque”, 영국에서는 “Edwardian era”로 불리웠다¹³⁾. 한편 남북전쟁(1681~1685)이래 경제적 발전과 평화가 지속된 미국은 Victoria 시대 말부터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하여 유럽의 것을 본뜬 오페라 하우스를 세웠고, 부유층은 미술품을 모으는 등 유럽의 왕족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¹⁴⁾. 1903년 Wright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고, 영화와 자동차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의 발달로 1차대전 이전 시기는 “the good years”, “the confident years”, 등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미국이 매우 낙관적인 시기임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⁵⁾.

풍요로움과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 토요일 오전 근무의 보편화로 이 기간동안 사회 모든 계층이 자전거 타기, 테니스, 폴로, 골프, 카투, 자동차 운전 등의 스포츠를 하는 것과 온천지역이나 해변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의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16,17)}.

이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양식인 art nouveau는 기계 문명 및 모든 전통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감정적 추상 형태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1910년까지 지속되었으

며¹⁸⁾, 1900년대에는 야수파(fauvism), 입체파(cubism), 미래주의(futurism) 등 무수한 예술이 파생되었다. 특히 1910년 러시아 발레단이 공연한 세헤라자데와 클레오파트라의 선명한 색조와 이국적 취향은 모든 예술 분야 특히 의상계에 영향을 주었다¹⁹⁾.

2) 남성의 패션

19세기 말에서 1차 대전까지의 기간중에 남성복은 평상복으로 입던 프록(frock)이 1890년대 말경 낮에 입는 예복이 되면서 평상복은 모닝 코트(morning coat)로 대체되더니 점차 라운지 슈트(lounge suit) 혹은 sack 슈트(sack suit)가 널리 착용되었다²⁰⁾. 턱시도(tuxedo)²¹⁾, tail coat는 예복으로 착용되고, 프록, 모닝 코트도 예복으로의 사용이 많았으며, 신사복(business suit, sack suit, lounge suit), 블레이저(blazer)²²⁾, 노포크 재킷(norfolk jacket)²³⁾, 스포츠 재킷(sports jacket)²⁴⁾은 스포츠할때 뿐아니라 평상복으로도 입었다²⁵⁾.

남성복은 예복, 평상복, 스포츠복 등 용도에 따라 스타일과 재단 방법 등이 구별되었으며²⁶⁾, 같은 옷이라도 디너파티, 무도회, 결혼식, 음악회 등의 착용 장소에 따라 셔츠, 넥타이, 조끼를 다르게 선택 하였으므로 옷을 바르게 입는 것이 남자에게 매우 중요했다²⁷⁾. 그러나 실지로는 20세기에 와서 남성복은 Victoria 시대의 규범의 약화와 스포츠의 영향으로 격식이 완화 되었다. 이 시대의 패션리더인 Wales의 왕자(Edward VII세)는 실용적인 우아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는 프록을 단추를 채우지 않고 열어놓아 체인으로 연결하였고, 1900년경에는 상황에 따라 프록 대신 라운지 슈트를 입었으며, 조끼의 아래 단추를 채우지 않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유행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이 우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끼의 길이, V-point의 깊이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28,29)}.

Victoria 시대 말에는 멋쟁이나 의사, 법률가, 교수 등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프록, 톱 해트(top hat), 에나멜 구두, 스페츠(spats)³⁰⁾ 등을 착용하고 재킷의 깃에는 꽃(boutonniere)을 꽂아 장식했다. Edward 시대에도 부유층은 우아함과 고상한 것을 추구하였다³¹⁾. 그러나 1차대전의 시작으로 고상함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³²⁾.

Edward 시대가 끝나고 1차대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일부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성숙하거나 신중해

보이기 위해 검정색의 프록이나 금테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성세대를 모방하지 않는 그들만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³³⁾ 이는 20세기에 와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대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사복(business suit)은 1850년대이래 재킷, 조끼, 바지의 삼부 구조로 정립된 스타일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착장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1880년대에는 재킷의 맨위 단추만 채우던 것을 아래까지 잠귀 오늘날과 같은 방법으로 착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디자인에서도 1890년대에는 칼라와 라펠의 약간 넓어지는 등 현대형 신사복에 가깝게 되었다^{34,35)}.

신사복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장한 몸을 선호하게 됨에따라 어깨는 패드로 넓고 각지게 표현되었으며 1910년경에는 상당히 강조가 되어 바지부리가 좁은 바지와 입었는데 그후 자연스러운 어깨형의 재킷으로 변화되었다^{36,37)}.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는 지나친 어깨의 과장으로 인한 반작용과 스포츠로 단련된 이상적인 체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그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10년경에 나타난 자연스런 어깨형의 신사복은 허리가 들어가고 허리선이 약간 높은 재킷과 커프스가 있는 좁은 바지를 발목뼈 위로 짧게 입어 양말과 구두가 드러났다. 이러한 스타일은 1900년대의 코르셋 의한 과장된 S 실루엣에서 Paul Poiret의 허리선이 올라간 날씬한 스타일로 변화된 여성복과 매우 닮은 점을 볼 수 있다³⁸⁾ [그림 1].

신사복의 재킷은 싱글형과 더블형이 있었으며, 재킷 길이는 대체로 길었으며 위에서 단추가 달려 라펠은 길이가 짧았다[그림 2]. 주머니는 가슴주머니과 두개의 뚜껑주머니(flap pocket) 외에 동전주머니(ticket pocket)가 오른쪽 뚜껑주머니 위에 달려기도 했다. 1912년경에는 라펠이 길고 소매에 커프스가 달린 재킷과 홀입술 주머니(welt pocket)가 보였으며, 가슴주머니가 덜 이용되었다. 뒷중심에 술기선이 없는 재킷은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 트임(vent)있는 형을 입었다³⁹⁾. 직물은 서지(serge), 체비엣 양모(cheviot)⁴⁰⁾, 소모직(worsted), 즐무늬 플란넬(flannel), 색서니(saxony)등이 사용되었고, 20세기에 와서 트위드(tweed), 홈스펀(homespun)이 스포츠 재킷, sack 슈트에 이용이 늘면서 다양해졌다. 색상



Fig. 1. New Silhouette, 1914. *Costume and Fashion* p. 225.

은 진한 남색(navy blue), 회색, 고동색, 검정색의 무지와 어두운 색조의 체크와 줄무늬를 사용했다^{41,42}).

바지는 매우 폭이 좁아 무릎 부분은 18에서 19인치 이고 바지부리는 17인치 정도였다. 1890년대 말경에는 앞, 뒤로 주름(crease)을 세웠다. 1905년경 바지 길이가 짧아지면서 신사복의 바지에는 종종 커프스가 보였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았으며, 노포크 재킷 같은 스포츠복에는 2인치 넓이의 커프스가 인기였다. 1910년경 윗부분은 매우 넉넉하며 발목 부분에서 좁혀진 페그 톱(peg-top)바지가 유행^{43,44})이었고, 바지 허리의 주름은 1911~12년에 소개되었다⁴⁵). 직물은 신사복에는 재킷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스포츠복에는 같은 소재 혹은 회색 플란넬, 프록이나 모닝 코트에는 같은 소재이거나 회색의 줄무늬 캐시미어를 사용했다⁴⁶). 바지의 앞부분은 숨은 단추로 여며졌고 주머니는 두개의 옆주머니와 허리에 시계주머니가 있고 두개의 뒷주머니 중 하나는 작은 끈을 사용하여 단추로 잠겼다⁴⁷).

조끼는 싱글형은 칼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으며 앞이 V자 모양인 것과 야회복을 위한 깊게 파인



Fig. 2. Lounge suit, Chesterfield and bowler, 1900.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22.

U자 모양이 있었다. 더블형은 대체로 칼라와 라펠이 있었는데 보통은 프록과 같이 입으나 종종 모닝 코트나 신사복과 함께 착용되었다. 전 시대에는 바지와 재킷의 색상과 문양에 대조되도록 조끼를 착용했으나 재킷과 같은 천을 이용한 것이 증가하였다. 조끼의 뒤판은 앞판과 다른 천을 사용한 점은 18세기 이래 계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허리에서 잘 맞도록 끈과 버클로 조절되었다. 19세기말에는 조끼 단은 일자였으나 점차 뾰족해졌다⁴⁸). 노포크 재킷, 블레이저 등의 스포츠용이나 여름옷에는 입지 않았다⁴⁹).

셔츠는 끝이 약간 접혀진 윙 칼라(wing collar) 혹은 앞 중앙이 V자로 벌어진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의 높고 뾰뻛한 칼라가 사용 되었지만 칼라폭은 이전보다 좁아졌다. 또한 꺾어진 칼라 모양의 turn-down collar도 유행이었다. 1890년경에는 오늘날과 같이 칼라가 셔츠에 부착된 형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분리된 칼라와 커프스를 착용하였다. 예복용 셔츠는 앞부분은 강하게 풀을 했으나 가늘게 주름잡힌

것도 사용했다. 평상복과 스포츠를 위한 옷에는 약하게 풀을 했다⁵⁰⁾. 어깨에는 요크가 있으며 커프스는 단추로 여며지고 재킷의 소매부리에서 2~3cm 또는 그 이상 노출 시켜 입었다. 앞, 뒤 도련은 전 시대에 이미 둥근 모양을 했으며 이시기에는 그 형이 고정되어 앞면이 뒷면보다 3cm 더 짧았다. 예복용 셔츠는 아마(linen), 풀이 있는 무명(pique)으로 흰색이 사용되었지만 평상복은 밝은 단색이나 줄무늬, 격자무늬, 눈에 띄지 않는 꽃무늬 등을 이용했다⁵¹⁾.

타이는 1860년대 이후 사용된 현대형 넥타이인 four-in-hand⁵²⁾를 많이 사용했는데 끝이 일자형이거나 뾰족했다. 그밖에 보 타이(bow-tie), 애스컷(ascot)⁵³⁾도 이용했다⁵⁴⁾.

외투는 1880년대 소개된 케이프가 있는 인버네스(inverness)와 일반적으로 벨벳 칼라가 부착된 체스터필드(chesterfield)였다. 부유층은 털을 안에 넣거나 부분적으로 장식했다. 20세기에 와서는 운전 할때 도로가 비포장이고 차가 뚜껑이 없으므로 더스터 코트(duster coat)라 불리는 길고 여유는 코트와 보호안경

(goggle)과 형견으로 된 모자를 같이 착용했다⁵⁵⁾[그림 3].

스포츠복은 무릎 길이의 테니스바지, 하이킹바지와 보트놀이, 하키, 폴로 등을 위한 재킷과 바지, 편물로 된 카디건, 풀오버, 스웨터, 터틀넥 등이 있었다. 스포츠복 중에서 노포크 재킷, 니커즈(knickers), 스타킹(stockings), 게이터(gaiter)⁵⁶⁾, 캡(cap)을 함께 착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블레이저[그림 4]는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재킷이었다⁵⁷⁾. 1913년 프랑스의 겨울 휴양지 에서 입은 스웨터나 모자(cap) 등의 스포츠를 위한 복식이 매우 다채로운 색상으로 기록되었는데⁵⁸⁾ 이는 19세기말이래 20세기초의 밝은 색상과 격렬한 배합의 동양 취향⁵⁹⁾과 프랑스의 표현주의 회화 양식인 야수파(fauvism)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모자는 크라운이 높은 톱 햇트와 둥근 크라운의 딱딱한 펠트로 만든 더비 햇트(英: derby, 英: bowler)가 이용되었으며, 1885년 등장한 부드러운 펠트모인 홈부르크(homburg)⁶⁰⁾, fedora⁶¹⁾는 20세기초 이후 평



Fig. 3. Duster, 1910. Esquire's Encyclopida of 20th Men's Fashion p. 97.



Fig. 4. Edward in 1900-style Blazer, homburg and boutonniere.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15.

상복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밖에 여름용으로는 보터햇트(boater, straw hat)⁶²⁾, panama⁶³⁾가 이용되고 여행시와 스포츠 할때는 캡 등을 사용했다^{64,65)}.

신발은 끈으로 묶는 단화인 옥스포드 슈즈(oxford)가 1900년 이전부터 나왔으나 1920년 이전까지는 옆을 여러개의 단추로 고정시키거나 고무천을 댄 부츠가 더 많이 이용되었다⁶⁶⁾. 앞부분이 뾰족했던 신이 둥근 앞 부리를 한 신(broque)로 서서히 변하면서 현대 신의 시작이 되었다. 스패츠도 이용되었고 예복에는 검정 리본이 부착된 에나멜 펌프스(pumps)를 신었다. 그밖에 여름용으로는 캔버스(canvas)로 만든 신이 있었다⁶⁷⁾.

머리는 지난 시대보다 짧고 컬(curl)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스타일은 앞머리를 높게 해서 위로 빗어올린(pompadour)형과 중앙 혹은 옆에 가리마를 했다. 대부분의 남자는 가느다란 콧수염은 있고 간혹 턱수염을 기르기도 했지만 구렛나루를 제외하곤 깨끗하게 면도를 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콧수염과 구렛나루는 유행에 뒤진 스타일이 되고 남자의 머리는 옆 가리마를 많이 했다⁶⁸⁾.

액세서리는 코안경, 외눈안경, 지팡이, 장갑, 시계, tie pin, cuff links 등이 있고 파이프는 대학생들에게 인기였으며 바지는 멜빵 대신에 벨트를 이용했다⁶⁹⁾.

2. 세계 제 1차대전과 1920년대

1) 시대적 배경

현대적 과학기술을 응용한 1차대전의 파괴와 살육은 재정적 물질적 피해와 구질서의 붕괴를 가져왔다. 유럽의 주요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호전되어 20년대 말에는 경제 안정과 사회 안정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되었다. 한편 1차대전 동안 교전국 특히 연합군에 식량과 군수품 공급으로 이익을 거둔 미국은 전후 일시적 경기 후퇴는 있었지만 유럽 열강이 국내 문제에 힘쓰는 틈에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발전으로 번영을 하였다⁷⁰⁾.

남성의 참전으로 인한 연성의 사회 참여는 여자들에게 많은 자유와 권리를 주었다. 1918년 이후 많은 나라는 헌법에 남녀 동등권을 인정하였으며, 1917년 영국은 30세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⁷¹⁾.

여성 성역할의 변화, Freud의 성에 관한 정신분석

학 이론에 의한 혼란, 1차대전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의심 및 새로운 과학, 기술, 운송수단, 예술, 오락도 인한 구문화의 붕괴 등으로 미국과 유럽의 사회 관습과 기존 가치는 대 변혁을 맞는다^{72,73)}. 특히 젊은이들은 사회 행동의 고루한 전통을 부정하고 변화와 사회적 자유를 만끽하려 하였는데, 20년대 “Roaring Twenties”, “Jazz Age”의 이미지는 젊음의 흥청거림과 향락주의로 볼 수 있다. 역사상 이전의 어떤 시대도 20년대 만큼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주역의 위치를 차지한 적은 없었다⁷⁴⁾.

20세기 초의 예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험은 art nouveau 시대에 태동한 art deco양식의 출현을 가속화 하였다. 간결한 기하학적 형태를 강조하고 기능성을 중시한 art deco는 1910년 경부터 장식 및 조형예술 분야에 영향을 주어 20년대에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⁷⁵⁾.

2) 남성의 패션

제 1차대전과 그이후에는 경제적 대변동과 사회관습의 약화로 인해 남성복식은 엄격한 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편안한 스타일로 변했다⁷⁶⁾. 1차대전 이후 모닝코트는 결혼식 혹은 취임식같은 외교행사를 위한 옷으로 쓰였다⁷⁷⁾. 프록은 점차 사용이 줄더니 없어지고, 턱시도 혹은 디너 재킷(dinner jacket)이 tail coat를 대신하여 연회용으로 입었다. 신사복(business suit)이 모든 남성에게 대표적인 옷이 되었으며 워그 칼라와 톱 해트는 공식적인 저녁 혹은 아침 모임에만 제한적으로 쓰였다⁷⁸⁾. 미국에서는 Bahama나 Florida의 여름 휴양지에서 입던 아마, 시어서커(seersucker), 션팅(shantung)등으로 만든 여름용 신사복은 전후 평상복으로 사용되었으며, 1920년대에 있어 색상은 신사복, 셔츠, 타이 등에서 중요한 요소였다⁷⁹⁾.

전쟁은 남성복식에는 여성복식 만큼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군복의 편안한 스타일에 익숙한 젊은 병사들은 전후 평상복에서도 편안함을 중시하여 종종 조끼를 입지않거나 칼라가 부착된 셔츠를 선호했다⁸⁰⁾. 또는 전쟁으로 의류는 귀해지고 가겨운 오르는 결과를 낳았으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퇴역 후에도 전시 중에 그들의 유니폼인 트렌치 코트(trench coat) [그림 5]와 더불어의 짧은 모직 코트인 British warm⁸¹⁾을 평상복으로 입었다. 1920년대 초에는 전후에 남은 군수품인 재킷, 바지, 군화 등을 질기고 튼튼한 옷이



Fig. 5. Trench coat from the army officer. Encyclopedia of 20th Men's Fashion p. 581.



Fig. 6. Oxford bags, 1926.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56.

필요한 노동자들이 많이 착용했다⁸²⁾.

20세기 초 이미 기성세대와 다른 스타일을 원했던 젊은이들은 전후 좀 더 자유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고, 패션을 기성세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은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기회를 갖기를 원했으며, 새로운 패션을 시도하고 싶어했다. 영국의 Oxford 대학생들은 1925년경 폭이 25인치까지 기록되는 폭이 넓은 oxford bags[그림 6]를 입었는데 이러한 유행은 20년대 말 경제사정이 나쁠때 사라졌지만 1950년까지 지속되는 넓은 바지의 유행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최초의 현대 남성복에 젊은층이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⁸³⁾. 이 스타일은 미국의 Ivy League 대학생들에게 받아들여져 폭이 18인치반에서 22인치에 이르는 바지가 유행이었다. 이런 넓은 바지는 자연스러운 어깨형의 재킷, 버튼 다운 칼라(button-down collar)의 셔츠, 줄무늬 타이, 마름모형의 무늬가 있는 양말과 같이 착용하여 독특한 아이

비 룩(Ivy League Look)을 만들었다⁸⁴⁾.

1차대전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남녀의 동일한



Fig. 7. 1920's style. Civilization Journey to the Modern World p. 387.

라이프 스타일과 여권 신장으로 인한 남녀 동등사상은 의복에도 영향을 미쳐 유니 섹스 모드가 나타났다. 여성은 소년처럼 보이기 위해 가슴을 남작해 보이는 스타일을 입고, 남성도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런 어깨형의 슈트와 몸에 맞는 소년 같은 날씬한 스타일을 입었다⁸⁵⁾[그림 7]. 여성이 관(tubular)모양의 실루엣과 남성이 plus fours나 oxford bags를 입는 실루엣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⁸⁶⁾.

신사복(business suit)은 모든 남성들에게 대표적인 옷이 되었는데 몸에 잘 맞는 날씬한 스타일이었다. 전후 싱글형이 많고 재킷길이가 짧아졌으나 어깨 패드를 적게 넣은 자연스런 형으로 전시대보다 라펠 길이가 길고 바지도 1910년대 초기의 페그 톱 이후 일자형으로 되고 넓은 커프스가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1923년경 더블형 리퍼(reefer)⁸⁷⁾가 재등장 하고 바지도 바지폭이 넓은 oxford bags의 영향으로 점차 넓어



Fig. 8. Double and single-breasteds and stright-cut trousers, 1926. In Fashion p. 143.

졌으나 유행의 범위는 넓지 않아 20년대는 대체로 날씬한 스타일의 바지였다^{88~90)}[그림 8].

조끼는 칼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지난 시대와 비슷 하였으나 새로운 스타일이 1924년경 시작되었다. 폴오버가 조끼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는데 소매는 달리지 않고 없기도 했다. 밝은 노랑(canary yellow) 또는 다양한 색상의 'Fair Isle'⁹¹⁾[그림 9]'이 가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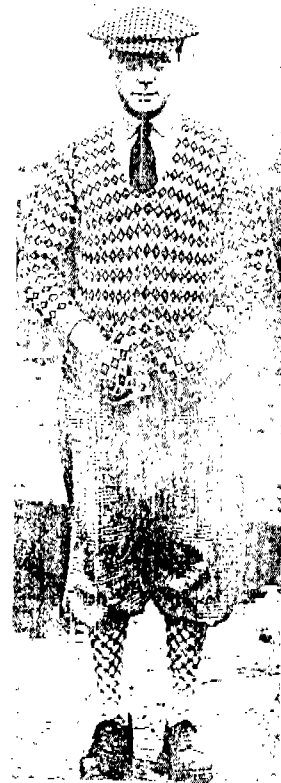


Fig. 9. Pullover, Fair Isle, plusfours, Argyle socks and cap, 1933. In Fashion p. 147.

기였다⁹²⁾. 이러한 니트 문양은 art deco와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⁹³⁾.

셔츠는 스탠딩 칼라가 끝이 동글거나 각이 진 turn-down collar로 대체 되었고 1920년대 말에는 셔츠 칼라를 뾰족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셀룰로이드 등을 넣었다 전시중에 입은 군인의 카키색 셔츠는 칼라와 커프스가 달린 것으로 연회용을 제외한 모든 셔츠에 이런 스타일이 받아 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⁹⁴⁾. 20년대 중반경에는 흰색 셔츠는 점차 감소하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중에는 색상이 있는 셔츠를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 했다⁹⁵⁾.

타이는 four-in hand, 애스컷, 보 타이가 사용되었는데 전쟁이후에는 애스컷은 모닝 코트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보 타이는 흰색은 tail coat에 사용되고 턱시도에는 검정과 흰색 둘 다 사용되었는데 전쟁 중 검정색 보타이를 턱시도에 착용 하는 것이 바른 사용법으로 되었다⁹⁶⁾. 색상은 전시대보다 훨씬 선

명했으며 rose, taupe, beige가 중요한 색상이고 대조가 되는 색상들을 같이 사용했다⁹⁷⁾. 무늬는 19세기 말 소개된 줄무늬가 20년대에는 Ivy League의 대학생과 Wales의 왕자(Edward VIII세)⁹⁸⁾ 영향으로 선호되었는데 줄무늬는 오늘날까지도 인기이며 코바늘로 짠 타이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했다⁹⁹⁾.

외투는 체스터필드, 인버네스, 얼스터 코트(ulster)¹⁰⁰⁾, 래글런 코트(raglan coat) 등이 전시대에 이어 사용되었으며 체스터필드는 가장 인기가 있었다. 1920년대에는 Ivy League의 대학생들이 이 코트를 받아들였는데 플라이 프론트(fly front)의 싱글형이 많았고 길어도 짧아졌다¹⁰¹⁾. 더블형으로 벨트가 있는 얼스터 코트는 20년대 중반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외에 1915~1925년 동안에는 축구 경기 관람시 혹은 당시의 뚜껑 없는 차를 운전할때 입는 너구리 털로 만든 'coonskin coat'를 젊은이들이 선호했다. 특히 1차대전 중과 그 이후에는 트렌치 코트의 밀리터리 스타일



Fig. 10. Overcoat and aviator goggles for flying, late 1920's. Costume History and Style p. 414.

이 반영된 매킨토시(mackintosh)¹⁰²⁾와 비옷이 유행이었다¹⁰³⁾. 외투의 실루엣도 전시대의 거대한 경향에서 벗어나 패드를 덜 사용하여 더욱 자연스러워졌다¹⁰⁴⁾ [그림 10].

1920년대는 활동적인 스포츠복이 간편한 캐주얼복으로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스웨터는 1880년대 자전거, 축구, 테니스, 요트를 할때 입기 시작 했는데 디자인은 터틀넥이었다¹⁰⁵⁾. 스웨터가 골프할때 사용된 것은 이시기로 골프복은 특별히 디자인된 스포츠 웨어가 필수가 아니므로 사교로 골프를 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같은 옷을 입었다¹⁰⁶⁾. 따라서 노동계층에게만 평상복으로 사용되던 스웨터는 상류층의 캐주얼복으로도 이용되었다. 디자인도 터틀넥, V-neck, 크루 넥(crew neck) 등 다양하고, 긴셔츠 위에 짧은 스웨터를 입거나 스웨터 밖으로 벨벳을 하거나, 타이틀 매는 등 착용 방법도 다양했다¹⁰⁷⁾. 그밖에 전쟁중 군인이 입던 넓은 반바지가 변형된 새로운 스타일의 plus-fours는 전후 골프복으로 입었는데 이것은 무릎보다 4인치 길어서 무릎아래서 자루처럼 늘어진 형이었다. plus-fours는 1926년 이후에는 캐주얼웨어로 사용되어 교외나 해변 뿐아니라 도심에서도 보였다^{108,109)} [그림 11]. 승마복으로는 단부분이 후레아진 재킷과 무릎위는 풍성하고 아래는 꼭맞는 조드퍼즈(jodphurs)를 입었다¹¹⁰⁾. 한편 20년대에는 스키 할때 스웨터와 plus fours를 입었으며, 수영복은 1916년 경에는 소매 없는 원피스였으나 1920년대에는 투피스 형으로 니트 폴오



Fig. 11. New informality, 1924. Costume and Fashion p. 251

버를 짧은 바지 위에 입거나 바지 속에 넣은 후 벨트를 했다¹¹¹).

모자는 20세기 초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유행한 fedora hat이 있으며, 흠부르크는 20년대 부터 각광을 받아 그후 약 3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다. 차양의 앞은 내리고 뒤는 올린 snap-brim hat은 1920년대 중반 이래 계속 사용되었고, panama hat도 애용되었다¹¹²).

신발은 1919년 전쟁이후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옥스포드 슈즈는 큰 인기를 얻었으며 높게 올라오는 신은 사라져 그후 40년간 남성 패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1920년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스포츠화의 증가를 가져와 흰색 소가죽으로 만든 신과 흰색에 고동색, 검정색으로 장식한 신을 신었다. 그의 발목뼈까지 길이로 끈을 매는 chukka boot가 1920년대 중반 경에 나타났다¹¹³).

머리는 상당히 짧았으며(crew cut)¹¹⁴ 앞에서 뒤로 빗어 올린 스타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옆 가리마를 선호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중앙에 가리마를 하는 것이 유행하고 특히 많은 남성이 포마드(pomade)를 발랐다. 콧수염과 턱수염은 전시에는 깨끗이 유지하기 힘들었으므로 나이는 사람을 제외하곤 말끔하게 면도를 했다¹¹⁵).

액세서리는 전쟁전 극소수로 보이던 손목시계가 1차 대전이후 주머니시계를 대신하고, 전쟁으로 스카프와 머플러 사용이 늘어 추운 날씨 뿐만아니라 장식으로도 이용하게 되었다. 특히 전쟁 후에도 많은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다녔지만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그 선호도가 점차 줄어들었다¹¹⁶). 그외에도 베레모(beret), tie-pin, cuff links, 운전용 할때 사용하는 장갑 등이 있었다.

3. 1930년대부터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1) 시대적 배경

전세계 금융제도와 경제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1929년 미국의 증권시장의 시세 폭락의 여파에 따라 30년대의 불경기와 사회 불안정 및 혁명, 질약 독재주의 등의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폭동에 의해 구미 각국은 국내 문제에 전념하였다. 따라서 국제연맹은 강대국의 침략행위에는 무력하였고 마침내 1939년 독일에 의한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시작되었다. 6년간 계속된

전쟁의 피해는 1차대전보다 더욱 커서 전후 유럽은 경제적 파멸과 정국의 혼란이 심하였으나, 전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미국은 원조자 및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¹¹⁷).

1930년대는 대공황의 쇼크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약을 받게되었으므로 남녀의 역할에 관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20년대의 활기차고 진보적인 분위기와 달리 30년대에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회복시키려 하였다¹¹⁸).

영화는 이기간 동안 대표적인 오락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값싸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의 로맨스와 모험들을 즐기며 영화를 통해 그들의 꿈을 만끽하고 어려운 현실로 부더의 도피를 했고, 전시에는 애국적인 테마를 다룬 것을 많이 보았다¹¹⁹). 따라서 경제 사정이 악화된 30년대뿐만아니라 전시에도 영화산업은 호황을 누렸고, 미국의 할리우드는 옷, 인테리어,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이었다¹²⁰).

예술은 정부와 부유한 사람에게 의해 유지되었으며 큰 발전은 없었다. 1930년대의 정치, 사회,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초현실주의가 선호되었다. 한편 실내 장식, 가구, 옷 그밖의 인공물에서 그 이미지를 유지하던 art deco는 지난 시대의 엄격함과 단순함에서 좀더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121,122}).

2) 남성의 패션

제 1차대전이후 20년대의 변영과 낙관의 시대는 1929년 경제대공황이후 경기 악화와 2차 대전에 대한 예감으로 남성복의 유행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일부 사람에게 의해 이끌어지고 변화는 활기차지 못하고 단조로웠다. 그러나 스포츠복, 색깔있는 셔츠, 양말 등의 요소로 이것을 보충했다¹²³). 특히 패션리더인 Wales의 왕자(Edward VIII세)는 고동색 재킷에 복숭아색 셔츠, 핑크 타이, 노랑 풀오버를 입고, 가슴주머니에는 오랜지색 손수건을 꽂아 장식하는 등 색상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다¹²⁴).

전시중에는 모든 관심은 전쟁의 승리에 있었으므로 영화, 소설 뿐만아니라 의복도 군대의 이상에 맞추어졌다. 물자의 부족으로 의류배급제가 실시되고 신사복은 주머니와 소매 단추를 적게 하고 바지 폭은 좁았으며 재킷은 짧아지는 등 디자인의 제한을 받았는데 영국에서는 'utility suit'로 미국은 'victory suit'로 불리웠

다¹²⁵⁾. 1942년 6월에 발표되어 1949년 해제된 실용적인 평상복(utility lounge suit)은 5개 이하의 주머니, 조끼없는 싱글형 재킷, 바지는 커프스 없는 스타일로 금속의 여밈장식도 허용되지 않았다¹²⁶⁾.

전통적인 신사복에 있어 두드러지게 격식이 완화된 것은 1차대전 이후에서 시작되어 2차대전에 이르기 까지인데 특히 2차대전은 신사복의 스타일 뿐아니라 구성 방법과 직물에도 영향을 주었다. 봉제법은 좀더 단순화 되고 신사복에서의 딱딱한 구성 방법이 줄어들었다¹²⁷⁾. 직물은 미국은 시어서커, 여름용 소모직, 레이온과 아세테이트 등이 혼방된 가볍고 시원한 여름 신사복 매출이 늘고 영국에 수출하였다¹²⁸⁾. 영국에서는 2차대전 직전에 아세테이트로 된 신사복과 레이온 셔츠가 나타났다¹²⁹⁾. 또한 전시에는 모직과 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30년대 말 발명된 나일론을 군수품에 많이 사용하였다¹³⁰⁾.

30년대에는 20년대에 시작된 'casual revolution'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기능을 중시한 실용적인 옷과 격식이 약화되고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했다¹³¹⁾. 미국의 디자이너인 Elizabeth Hawes가 바지와 셔츠 만을 입는 'slack suit'를 소개했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도시에서 입었으나 근무할 때는 입지 않았다¹³²⁾. 한편 영국에서는 1929년 영화배우 Miles Malleon, 심리학자

Flugel, 의사 Norman Haire이 Men's Dress Reform Society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좀더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위생적인 남성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넥타이가 필요 없는 목 부분이 열린 스타일의 셔츠, 반바지, 샌들(sandal)등을 제안[그림 12]하였으나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자(Fabian)와 채식주의자(vegetarian)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기이하게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남성복에서의 편안한 스타일의 선호는 점점 증가하였다^{133,134)}[그림 13].

1930년대는 전통적 가치관이 회생되었다. 남성은 운동선수 같이 어깨는 각이 지면서 넓고, 가슴도 넓어 보이는 남성다운 대담한 스타일을 선호했으며, 여성은 20년대의 낮은 허리선은 제 위치로 오고 넓은 어깨는 가는 허리를 더욱 강조하여 전체적으로 여성적인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¹³⁵⁾. 30, 40년대는 20년대와 비교할때 패드로 강조된 넓은 어깨와 허리가 강조된 남녀의 실루엣이 일치 됨을 볼 수 있다[그림 14].



Fig. 12. Participants in a contest organized by Men's Dress Reform Party, 1937.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70.



Fig. 13. Business suit, 1941.メンズファッションの歴史 p. 128.



Fig. 14. 1930's style, 1934. Les Années-Mémoire p. 34.

1930~50년 사이에는 패션잡지의 삽화나 사진에 나타난 신사복(business suit)의 큰 변화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삽화에서는 30년대 어깨패드가 더 높게 되고 허리선이 올라간것이 보이나 사진에서는 구별하기 어려워 이시기는 신사복의 변화가 거의없이 영국의 drape suit 스타일이 주도 하던 시기이다^{136,137}.

1930년대에 영국 Savile Row에 재단사인 Frederick Scholte가 1차대전 중의 근위병 제복(Guard's uniform)을 본뜬 'drape cut'을 만들었다. 이옷은 어깨로 부터 앞, 뒤 몸판이 여유있게 재단되어 가슴 부분이 자유롭고 편안하며, 허리가 들어간 어깨가 넓은 형으로 남성복의 우아함을 나타나 클래식한 스타일이었다[그림 15]. 미국에서는 1935년 경제가 회복될 무렵 영국의 'drape cut'을 기초로 하여 유행에 적합하도록 허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하고 앞, 뒤 판의 여유도 다소 적게한 자연스러운 형이 생겨



Fig. 15. The Prines of Wales in square-cut, double breasted suit and baggy pants 1933. In Fashion p. 147.

Hollywood영화의 스타들이 이 스타일을 유행시켜 40년대에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¹³⁸). 따라서 영국 주도의 남성패션에 미국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시기의 신사복은 1920년대의 날씬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이 부피감 있고 각이 진형으로 변했다. 패드를 이용한 넓은 어깨와 큰 라펠의 상의로 더블 재킷이



Fig. 16. Double breasted suit and straw boater, 1931. Costume History and Style p. 431.



Fig. 17. Glen plaid suit and snap brim hat, 1932.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96.

1920년대보다 많이 이용되었으며[그림 16], 상의의 트임도 양옆에 주는 것이 많았다¹³⁹⁾. 여름에 입는 신사복은 시원하도록 안감이 없는 싱글형으로 어깨패드도 낮은 것이 있었다. 바지는 윗부분에 깊은 주름이 있는 넓은 형태로 아래 키프스도 컷다. 30년대 중반 Wales의 왕자(Edward VIII세)가 바지 앞여밈을 단추 대신 지퍼를 이용하면서 이것이 유행 되었다. 색상은 스포츠복의 영향으로 진한남색 혹은 검정이나 갈색, 황갈색도 쓰였다¹⁴⁰⁾. 직물 문양은 헤링본(herringbon), 버드 아이(bird's eye), 수직 혹은 사선의 줄무늬 등이었는데 이중 다양한 폭의 줄무늬와 격자무늬(glen plaid)가 가장 인기였다[그림 17]¹⁴¹⁾. 그러나 40년대에는 보다 절제된 스타일의 추구로 짙은 남색이나 회색이 주류를 이루고 격자무늬도 덜 눈에 띄었다¹⁴²⁾. 한편 미국의 할렘가 나이트클럽에서 유래된 어깨패드가 높고 과장된 형태의 길이가 긴 더블형재킷과 페그톱의 zoot suit[그림 18]를 미국의 War Production Board는 낭비적인 옷으로 규정하였다. 이 스타일은 유행의 범위가 크지 않았지만, 전후 영국과 프랑스의 신사복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다^{143~145)}

예복으로 tail coat는 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무릎까지 오는 꼬리 부분이 있고 바지 옆선은 공단이나 그로스그레인(grosgrain)으로 만든 넓은 줄장식을 했으며 앞부분에 주름을 잡은 실크 셔츠는 turn-down collar



Fig. 18. Zoot suits, 1938. A History of Men's Fashion p. 202.

이거나 wing 칼라였다. 턱시도에는 조끼대신 넓은 허리띠(cummerbund)가 이용되었다. 색상은 검정보다 진한남색이 많이 이용되고 반색도 종종 쓰였으며 더블재킷의 형태인 것도 자주 보였다. 검정 혹은 색깔있는 보 타이와 같이 착용되었다¹⁴⁶⁾. 흰색의 턱시도와 허리까지오는 mess jacket이 여름용 예복으로 소개되었다¹⁴⁷⁾.

조끼는 신사복(business suit)에는 싱글형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20년대 말과 30년대 초에는 더블형도 보였으며, 1939년 잠시동안 더블형이 나타났다. 모닝 코트에는 검정, 밝은 회색, 담황갈색의 싱글형을 입었으나 결혼식 때는 밝은색의 더블형도 입었다. 2차대전 바로 전에는 여름에 조끼를 입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한 습관이 굳어졌다¹⁴⁸⁾. 1930년대에는 뒤 몸판이 없는 할터(halter) 형태의 것도 있었다¹⁴⁹⁾. [그림 19]의 조끼는 대중적인 것은 아니지만,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시대의 예술사조를 남성복에서 볼 수 있다.



Fig. 19. Vest in a manner suggesting surrealism, 1936. Life: Goes to the Movies p. 43.



Fig. 20. Business suit, 1940.メンズファッションの歴史 p. 128.



Fig. 21. Edward VIII in polo shirt and beret, 1931.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66.

1930년대에는 셔츠 디자인은 cuff links를 사용하는 French cuff는 야회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커프스는 단추로 여겨졌다. 1930년경 turn down collar를 턱시도와 같이 입었다. 1936년경부터 칼라 끝이 긴 디자인이 증가했다¹⁵⁰⁾[그림 20]. 그의 칼라 끝이 긴 핀에 의해 타이 아래서 고정되는 pin collar shirt, 천으로 만든 고리로 고정되는 tab collar shirt, 폴로 셔츠(polo shirt)[그림 21] 등이 있었다. 색상은 wine red, navy, brown의 진한색의 셔츠가 급증하여 밝은색의 재킷이나 바지와 함께 착용하였다¹⁵¹⁾.

타이는 30년대에는 Windsor공(Edward VIII세)에 의해 커다란 매듭이 눈에 띄었지만 좁고 작은 매듭을 했다. 30년대 중반에는 보 타이가 20세기의 어느 시기보다 인기가 있었으며 2차대전 중에는 Frank Sinatra에 의해 더욱 유행되었다. 직물은 날염된 얇은 견직물

(foulard), 공단, 타프타, 마드라스(madras)를 사용하였다. 그의 20년대부터 사용된 코바늘로 짠 타이와 소모직 혹은 트워드, 샬리(challis)등의 모직물로 만든 타이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많았다. 색상은 원색에서 파스텔까지 다양하고 문양도 줄무늬, 격자무늬, 꽃무늬, 추상적인 무늬외에 1930년대에는 손으로 직접 그린 타이도 유행이었다¹⁵²⁾.

외투는 대체로 페드를 넣은 어깨와 큰 포켓의 여유 있는 박스 스타일[그림 22]이었으나 트렌치 코트와 폴로 코트(polo coat)는 벨트가 있었다¹⁵³⁾. 특히 1924년 영국의 폴로팀이 미국에서 경기를 가진후 주목을 받은 낙타털 혹은 캐시미어로 만들고 벨트가 있는 폴로 코트는 30년대에도 계속 착용되었다. 그밖에 단추없이 벨트로 여미는 낙타털로 된 코트도 있었다. 온도 변화에 따라 지퍼로 안감의 탈착이 가능한 코트(zip-in-lining)가 소개되었으며 후드 달린 파카(parka)와 매



Fig. 22. Overcoat, 1933.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72.

키노 재킷(mackinaw)¹⁵⁴⁾이 있었다¹⁵⁵⁾.

스포츠복의 경우는 운동선수나 구경을 하는 사람 모두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옷을 입는 경향이 있었다. 스포츠복으로의 카디건이나 폴오버는 다양한 스포츠 셔츠에 의해 대체되었다. 골프복으로는 스포츠 재킷 대신 허리에 밴드가 있어 허리부분이 풍성하며 지퍼나 단추로 여머지는 wind-cheater나 럼버 재킷(lumber jacket)¹⁵⁶⁾이 이용되었으며 Fair Isle 대신 노랑색등의 눈에 띄는 단일색 폴오버를 입었다¹⁵⁷⁾. 바지는 plus fours 대신 긴바지가 골프할때 이용됐다. 테니스복에서 타이는 더 이상 착용되지 않았고 긴바지 대신 반바지가 등장했다. 해변가에서는 열대지역 병사의 유니폼이던 짧은 소매와 셔츠형의 칼라가 달린 bush jacket를 반바지와 함께 입었다¹⁵⁸⁾. 수영복은 1940년경에는 위의 tank top 없이 짧은 팬츠만 입기 시작했다. 1차 대전 이후 스포츠로 채택된 스키는 20년대에는 스키복으로 스웨터와 plus fours였으나 30년

대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재킷과 넉넉하게 재단된 긴바지에 발목에 고무줄을 넣은 커프스가 있는 것으로 변했다¹⁵⁹⁾. 사냥용으로는 지퍼로 잠그는 캔버스 재킷(canvas jacket), 해변에서 입는 테리클로스 셔츠(terry cloth shirt와 티셔츠(T-shirt) 그밖에도 다양한 바지, 카디건, 스웨터, 폴오버, 반팔 셔츠, Bermuda shorts 등이 있었다.

특히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사이에는 Levi denim jacket과 바지가 캐주얼복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있었다. 이외에도 전후에는 군수품이 시민복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허리에서 벨트로 묶는 Eisenhower jacket, 영국의 수병들이 입던 후드가 달리고 토글(toggle)이라 불리는 나무로 된 단추로 채우는 더플 코트(duffle coat), 가죽으로 된 비행복 등이 캐주얼하게 착용되어 이 시기의 신사복의 획일성과 단조로움을 줄여 주었다¹⁶⁰⁾.

모자는 흠부르크, snap-brim hat, panama, 베레모, 캡이 지난 시대부터 계속 이용되었다. 그의 크라운이 원형으로 들어간 pork-pie hat은 193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얻었으며 40년대 중반이후 사라졌다¹⁶¹⁾.

신발은 검정이나 고동색의 옥스포드 슈즈를 착용하고, 스포츠용으로 흰색신이나 샌들도 신었다. 흰색을 앞부리와 뒤꿈치에 사용한 검정 혹은 고동색 신발인 two-toned oxford, chukka를 계속 신었다. 턱시도에는 에나멜 옥스포드 슈즈를 신고 잘 갖추어 입은 성장 시에는 에나멜 펌프스(pumps)를 신었다. 본래 노르웨이 어부들이 신던 slip-on shoes가 런던과 미국 등에 받아들여져 이 스타일이 35년간 지속되었다. 젊은 층에서는 로퍼(loafer), 새들 슈즈(saddle shoes)도 이용되었다^{162,163)}.

머리는 짧았으며 옆 가리마를 선호하고 수영은 깨끗이 면도한 것으로 지난 시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액서서리는 손수건, 스카프, 시계, tie-pin, cuff-links 등이 계속 사용되었고, 담배 케이스는 전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스패츠도 거의 사라지고 지팡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곤 사용하지 않았다. 장갑은 패션 액서서리보다는 운전시에 사용하는 실용적인 편이 더 부각되었다¹⁶⁴⁾.

III. 결 론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남성패션의 변천과 특성을 시대적 상황에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세기에 성립된 신사복(business suit)이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 등의 복식 품목, 착용관습, 봉제법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체로 20세기 남성 패션의 주도했다. 따라서 단순미와 우아함을 갖춘 합리적 의상이란 신사복의 전통성을 유지하였다. 다만 재킷 길이, 어깨 넓이와 모양, 라펠의 모양, 단추의 수, 바지의 길이와 폭 등의 세부 디자인 만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남성패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시대사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남성패션은 서양 각국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였던 1차 대전 이전에는 우아함과 고상함을 추구했다. 20세기 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넓고 각이 진 어깨의 거대한 실루엣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대전이후 남녀동등사상은 유니섹스 모드로 나타나 남녀 모두 소년 같은 날씬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였다. 1930년대의 불경기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약을 받게 되자 남녀 역할의 전통적 가치관이 회생하고, 남성패션은 어깨가 강조된 남성다운 클래식한 스타일이 보편화하게 되었다. 2차대전중에는 물자 부족으로 의류배급제가 실시되고 디자인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남성패션은 활기차지 못했다. 특히 20세기에 와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영국 주도의 남성패션에도 그 영향력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셋째는 신사복의 실루엣은 동시대를 살던 여성복의 실루엣과 많은 부분이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지적한바 그대로이다.

넷째는 20세기의 남성패션을 여성패션과 비교 할때 그 변화의 폭이 매우 적었지만 신사복의 스타일, 색상, 직물이 다양해졌다. 또한 격식이 완화된 점에서는 여성복 보다 더욱 주의를 끈다. 이러한 남성패션의 변화에는 스포츠와 전쟁 그리고 젊은이의 영향이 요인이다.

20세기 여가시간의 증대와 부의 축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복의 출현이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개혁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스포츠복의 색상과 직물이 신사복의 확립성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스포츠복에서 시작된 블레이저, 스포츠 재킷 등과 본래 폴프복이던 plus fours를 평상복으로도 입게되었으며 그밖에 폴오버를 조끼대신 착용하고, 스웨터가 운동할때 뿐아니라 캐주얼복으로 착용하는등 스포츠는 20세기 남성복의 스타일의 다양화와 캐주얼화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의 두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신사복의 착용방법, 디자인, 봉제법 등의 격식은 약화되었으며, 신사복의 스타일과 직물이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1차대전이후 조끼의 사용이 줄고, 칼라가 부착된 셔츠 등의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2차대전으로 인한 물자의 부족은 나일론, 레이온, 아세테이트 신소재의 사용을 촉진시키고 봉제가 단순화되고 딱딱한 신사복 구성 방법이 줄었다. 한편 전후에도 트랜치 코트, 더플 코트, British warm등의 군수품을 평상복으로 사용하였다.

20세기에 와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그들만의 개성을 추구하면서 패션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고히 했다. 이들은 oxford bags, 아이비룩 등을 시도하여 Savile Row 중심의 신사복의 스타일에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좀더 자유로운 스타일과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했던 젊은이들의 남성복식의 격식을 완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의 남성복식의 변천과 그 특성을 고찰하여 남성패션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여성복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알고있던 패션에 관한 지식을 좀더 구체화 시킬수 있을 것을 바라며, 앞으로의 남성복 유행의 예측 및 새로운 복식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이화연 외 3명, 譯, 의복 : 제2의 피부 가치, 142(1988)
- 2) 이은영 패션마케팅, 교문사, 58-65, (1991)
- 3) 양숙희, 19세기 유유럽 신사복 Mode의 특성, 한국

- 의류학회, 8(1), 39, (1984)
- 4) Prudence Glynn, *In fashion: Dress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30, (1979)
 - 5)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op. cit.*, 283
 - 6) 양숙희, *op. cit.*, 27-39
박춘순, 구인숙, 신사복 성립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충남과학연구지*, 13(2), (1986)
지동경, 근대 신사복의 정형화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 사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4)
장은정, 서양 남성복의 유행변화: 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7) Farid Chen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Paris: Flammarion, 121, (1993)
 - 8)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N. Y.: Harper & Row Publishers, 471, (1965)
 - 9)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Prentice Hall. Ince., 374, (1983)
 - 10) Maryeslle S. Bigelow, *Fashion in History: Apparel in the Western World*,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mpany, 209
 - 11)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Twentieth Century, 1900-1950*, 241
 - 12)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N.Y.: Fairchild Publications, 274, (1989)
 - 13) Lavina M. Franck, *History of Costume: A Study Guide*,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 193, (1978)
 - 14) Marybells S. Bigelow, *op. cit.*, 209-210
 - 15)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52, 273
 - 16)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41
 - 17) Farid Chenoune, *op. cit.*, 136
 - 18) Douglas A. Russell, *op. cit.*, 387, quoted in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본 복식의 조형 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31-32, (1988)
 - 19) 정홍숙, *op. cit.*, 36-37
 - 20)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65
 - 21) 영국에서는 dinner jacket으로 불리운다. 1886년 Griswold Lorillard가 Tuxedo 공원에서 꼬리(tail) 없고 라펠이 긴 옷을 소개했다.
 - 22) 케임브리지 의 세인트존스대학의 보트클럽 선수들이 1887년경 고안한 것으로 어부들이 입던 reefer를 본 뜬 등에 슬기없는 재킷이다.
 - 23) 1870년경 영국에서 스포츠재킷으로 등장했으며 어깨에 요크가 있고 앞, 뒤 몸판에 주름과 제천 벨트가 있다. 주름이 있는 bellow pocket이 달렸다.
 - 24) 뒤에만 제천 벨트가 붙어 있고 뒤 트임이 있으며 패치포켓(patch pocket)이 있다.
 - 25) Douglas A. Russell, *op. cit.*, 390
 - 26) Margot Hamilton Hill and Peter A Bucknell, *The Evolution of Fashion: Pattern and Cut from 1066 to 1930*, N.Y.: Drama Book Specialists (Publishers). 241, (1981)
 - 27) 青木英未, 大橋信一郎 共著, *メンズファッションの歴史*, 源流社, 112, (1979)
 - 28) Farid Chenoune, *op. cit.*, 114
 - 29)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42
 - 30) 덧신의 일종으로 처음에는 진흙이나 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다.
 - 31) *Ibid.*, 327
 - 32) Marybelle S. Bigelow, *op. cit.*, 209.
 - 33) Farid Chenoune, *op. cit.*, 135
 - 34) Blanche Payne, *op. cit.*, 471
 - 35) Douglas A. Russell, *op. cit.*, 114
 - 36) Carolyn G. Bradley, *Western World Costume*, N.Y.: Appleton-Century-Crofts, Inc., 343, (1953)
 - 37) Jack Cassin-Scott, *Costume and Fashion in Color 1760-1920*, The Macmillan Company, 195, (1971)
 - 38) Farid Chenoune, *op. cit.*, 136
 - 39) Alan mansfield and Phyllis Cunnigton, *op. cit.*, 251-254
 - 40) Herringbone이나 능직으로 짜여진 거친 모직이나 혼방섬유물 말한다.
 - 41) *Ibid.*, 257
 - 42) Douglas A. Russell, *op. cit.*, 401
 - 43) James Laver, *Costume and Fashion: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222, (1982)
 - 44)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61-264
 - 45)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Y.: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404, (1987)
 - 46) Alan Mansfield and Phillis Connington, *op. cit.*, 264
 - 47) Marybelle S. Bigelow, *op. cit.*, 244
 - 48)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60-261
 - 49) Carolyn G. Bradley, *op. cit.*, 327
 - 50) Douglas A. Russell, *op. cit.*, 393-396
 - 51) 丹野郁, *服飾の世界史*, 白水社, 438-439, (1985)
 - 52) 네 마리 말을 묶은 끈을 한 손에 잡고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 한쪽 끝을 당기면 풀어지는 타이클을 사용한 데서 four-in-hand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53) 타이의 한쪽 끝이 다른쪽 끝을 덮는형으로 예복용은 두번 묶고 핀으로 고정시켰으며 평상복의 경우는 한 번 묶었다.
- 54)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73
- 55) Jack Cassin-Scott, op, cit., 195-196
- 56) 발목과 정강이 부분을 단추를 사용하여 천으로 감싸는 것
- 57) Douglas A. Russell, op, cit., 396-397
- 58) Farid Chenoune, op, cit., 136
- 59) Lavina M. Franck, op, cit. 193
- 60) Homburg, fedora는 크라운의 중앙이 들어간 부드러운 모자로 homburg는 fedora와 달리 챙의 가장자리가 말리지 않는것.
- 61) 오스트리아 Tyrol에서 같은 스타일을 사용해서 Tyrolian hat으로 불리기도 하고, 소설 Trilby의 여 주인공이 사용해서 trilby라고도 부른다.
- 62) 본래 농부들이 사용하던 모자로 멕시코전쟁이후 (1846~1848) 군인이 돌아오면서 일반인들도 사용했다. 크라운이 평평하고 챙이 말려 올라가지 않은형이다. 1910년경에는 dinner jacket과도 입었다.
- 63) 1906년 Theodore Roosevelt가 Panama 운하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부터 알려진 것으로 크라운 중앙이 두툼한 모양으로 20, 30년대에 특히 유행이었고 50년대에는 유행에서 사라짐.
- 64) Douglas A. Russell, op, cit., 393
- 65) François Boucher, op, cit., 403
- 66) O.E.Schoeffler and William Gale, Esquire's Encyclopidia of 20th Men's Fashions, N.Y.: Mcgraw-Hill Book Company, 592, (1973)
- 67) Carolyn G. Bradley, op, cit., 344
- 68) Marybelle S. Bigelow, op, cit., 230-231
- 69) Carolyn G. Bradley, op, cit., 344
- 70) 공병우, 세계문화사, 일조각, 288-291, (1976)
- 71) Carolyn G. Bradley, op, cit., 360-361
- 72) Douglas A. Russell, op, cit., 461
- 73)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91
- 74) Elizabeth Rouse, op, cit., 149
- 75) Dan Klein, Nancy Mcelelland and Malcom Haslam, Art Deco, London: Tressure Press, 7, (1984) quoted in 정홍숙, op, cit., 39
- 76) Karlyne Anspach,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342, (1959)
- 77)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83
- 78) Elizabeth Rouse, op, cit., 149
- 79)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Y.: Charles Scribner's Sons, 330, (1958)
- 80) Carolyn G. Bradley, op, cit., 361
- 81) 19세기 선원, 노동자들이 입던 외투인 pea-jacket으로 알려진 두꺼운 멜톤으로 만든 더블형의 코트로 1918년 장교들의 옷이 되었다.
- 82)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76-277
- 83) Prudence glynn, op, cit., 146
- 84)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12
- 85)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11
- 86) Elizabeth Rouse, op, cit., 157-158
- 87) 앞의 도련이 일자형으로 일반적으로 뒤 술기 없이 재단된다. 싱글형과 더블형이 있다.
- 88)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54
- 89)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587
- 90) Douglas A. Russell, op, cit., 412-413
- 91) 전체적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짜인 스웨터로 본래는 스코틀랜드 연안의 Fair Isle에서 생산되었다.
- 92) Iris Brooke, A.R.C.A: A History of English Costume, N.Y.: Theatre Arts Books, 173
- 93) Elizabeth Rouse, op, cit., 160
- 94) Douglas A. Russell, op, cit., 412-413
- 95)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570
- 96)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73
- 97)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570
- 98) 영국 왕족으로 후에 심슨 부인과의 결혼을 위해 왕위를 포기해서 Windsor공이 되었다. 그는 1920~1940년 동안 패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99) Ibid., 590
- 100) 커다란 convertible 칼라와 넓은 라펠이 부착된 더블형 오버코트로 벨트가 있는것과 없는 것이 있다.
- 101) Ibid., 586
- 102) 영국에서는 고무를 입힌 방수의 비옷을 말한다. 방수천을 만드는 혼합염을 특허낸 화학자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 103)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The Herbert Press, 182, (1984)
- 104)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83
- 105) R. Turner Wilcox, op, cit., 333.
- 106)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고찰: 미국 스포츠 웨어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 (1993)
- 107) Farid Chenoune, op, cit., 153
- 108) Iris Brooks, A.R.C.A, op, cit., 173
- 109) James Laver, op, cit., 251
- 110)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86
- 111) Ibid., 312
- 112)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592
- 113) Ibid., 592-593
- 114) 정수리 부분은 1인치 안팎의 길이로 그밖의 부분은 상당히 짧은 것으로 2차 대전 중 군인의 머리 스타

- 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crew(短艇)부원의 스타일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115) Douglas A. Russell, op, cit., 413
- 116)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94-295
- 117) 리더스 다이제스트, 20세기의 대사건들, 동아출판사, 220-221, (1993)
- 118) Elizabeth Rouge, op, cit., 166
- 119)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92
- 120) Douglas A. Russell, op, cit., 426
- 121) Ibid., 426
- 122) Lavina M. Franck, op., cit., 198
- 123)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97
- 124) Iris Brooke, A.R.A.C. op, cit., 176
- 125) R. Turner Wilcox, op, cit., 336
- 126)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324
- 127) Karlyne Anspach, op, cit., 343
- 128)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21-22
- 129)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330
- 130) Phyllis Torstora and Keith Eubank, op, cit., 292
- 131) Karlyne Anspach, op, cit., 328
- 132) Ibid., 342
- 133) Prudence Glynn, op, cit., 135
- 134) Elizabeth Rouge, op, cit., 158
- 135) Ibid., 166
- 136) Iris Brooke, A.R.C.A. op, cit., 175-176
- 137) O. E. Schd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17
- 138) Farid Chenoune, op, cit., 181-182
- 139) Douglas A. Russell, op, cit, 430
- 140) Ibid., 430-432
- 141) Farid Chenoune, op, cit., 178
- 142)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23 quoted in 장은정, op, cit., 40
- 143) Joan Nunn, op, cit., 218
- 144)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306-308
- 145) Farid Chenoune, op, cit., 205
- 146) Douglas A. Russell, op, cit., 329
- 147) R. Turner Wilcox, op, cit., 329
- 148)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309-310
- 149)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311
- 150)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322
- 151) R. Turner Wilcox, op, cit., 332
- 152) Douglas, A. Russell, op, cit., 432-433
- 153) Ibid., 433
- 154) 본래 미시간의 Mackinan 항구에서 인디안의 물품과 교역되던 줄무늬 혹은 체크 무늬의 두꺼운 담요를 말했는데 지금은 두꺼운 격자무늬의 모직으로 만든 더블형의 반코트이다.
- 155)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313
- 156) 모직, 면, 폴리에스터 등으로 만든 격자무늬의 두꺼운 셔츠.
- 157)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298
- 158) Ibid., 325-331
- 159) Phyllis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312
- 160) Douglas A. Russell, op, cit., 433, 453
- 161) O. E. Schoeffler and William Gale, op, cit., 592
- 162) Ibid., 593
- 163) Douglas A. Russell, op, cit., 433
- 164) Alan Mansfield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338-339